

지역 소식통

김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총 16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 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수에는 '뛰워행방! 시골 동네로 청년강사 학습버스 달린다'로 지역의 학습버스를 활용하여 청년 강사들과 함께 소외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육문화과 김은혜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근경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찬준 부시장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틀을 깨고, 시민들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완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고산미소 한우, 흑곰갈, 로컬푸드 등 답례품 27종과 공급업체 26개를 선정했다.

완주군은 최근 '완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를 거쳐 채택한 답례품은 총 27종이며, 농축산가공품 21개, 관광서비스 3개, 공예품 2개, 상품권 1개 품목이다.

답례품으로 고산미소 한우, 흑곰갈, 로컬푸드 꾸러미, 안덕마을 상품권 등이 선정됐으며, 답례품의 공급은 완주한우협동조합, 운주농협,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안덕과위영농조합법인 등 26개의 업체가 맡는다.

이번 답례품 선정은 공급업체가 답례품을 제안하고, 선정위원회가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함께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완주=염재복 기자

# “새만금 특별지자체, 공감대 형성 필요”

최승선·오승경 김제시의원, 시의회 본회의서 “시민 66% 반대...시민·시의회 동의없는 불가”

19일 열린 제274회 김제시의회의(의장 김영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선·오승경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최승선 의원은 “김제시 입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와 '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이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했으며 정성주 시장에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자치단체)의 실제와 실익은 무엇이냐며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단체와 관련한 협약 강요와 갈등조정협의회 추진 등을 통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장에게 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못했냐고 따져 물기도 했다.

오승경 의원은 “군산시에 편향적인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에게 특별자치단체가 없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질의했으며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며 특별자치단체는 차후에 논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김제시민의 66% 이상이 특별

자치단체에 반대하고 3개 시·군 통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압박은 김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고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을 강조하고 “군산시와 전북도의 행동과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확고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김제시는 새만금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매진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등 김제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산모자원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 완주군 이산모자원 '새 단장'

공부방, 유아돌봄실, 도서관 등 친환경 리모델링

완주군 이산모자원이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났다.

19일 완주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산모자원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최근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조영식 완주부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손민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센터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산모자원은 'HUG Dream VII'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부방, 유아돌봄실, 도서관, 화장실을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그린 리모델링했다.

HUG Dream VII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미혼

모시설의 환경개선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이산모자원이 선정됐다.

모자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생겨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화정 이산모자원장은 “앞으로도 이산모자원 거주자들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연계해 한부모가정의 자립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조영식 완주부군수는 “새단장한 보금자리에서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노지 지능형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첨단농업 실현

김제, 간척지 재배지역 환경개선 롤 모델 제시



김제시는 최근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분야 '간척지 모델(밀·콩)' 시범지구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36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종합기술들이 김제시 밀·콩 재배 지역에 집중 투입된다고 밝혔다.

시는 밀·콩 이모작 간척지 재배 지역의 열악한 토양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양·수분 함량 제어와 농작업에서의 로봇 활용으로 인한 첨단화, 2024년도에는 관매수, 양분관리, 농작업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2025~26년에는 생육모니터링 구축 등 단계적으로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실내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농업이었다면 이제는 노

지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대응을 위한 지능형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김제시가 실내 시설은 물론 노지 스마트기술도 선도하게 되어 농업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제일의 논콩 주산지인 김제시

는 이 사업을 통해 밀·논콩, 가루쌀 등 이모작 재배 활성화와 논 타작물 재배가 확대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삶이 행복한 농촌, 풍요로운 미래 농업 실현'의 김제농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가입자 확대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4일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했던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2022.4.15.시행) 혜택을 받았으나, 2024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한 사람은 1,600원으로 공제 세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력

태권도 꿈나무 국가대표팀 하계·동계 전지훈련 유치 결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 꿈나무 국가대표팀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김제를 찾아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팀과 꿈나무 국가대표팀의 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이어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한 성과이며, 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육시설과 운동용품, 선수단 이동 차량, 간식, 관광 프로그램 등 전지훈련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향후 야구, 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팀들의 전지훈련 유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섭 대표팀 감독은 “김제에서 실시한 지난 하계 전지훈련이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김제시의 열정과 노력으로 김제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정성주 시장은 대표팀 해단을 찾아 “김제를 다시 찾아준 태권도 국가대표팀에 마음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제에 머무는 동안 큰 부상 없이 높은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김제의 맛과 멋을 즐기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백송고 야구팀을 시작으로 30여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다"며 “내년에도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